

1번 ⑤

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공유재이다. 대표적인 공유재는 공해상의 어류이다.

- ① 공공재
- ② 공공재
- ③ 요금재
- ④ 민간재

2번 ③

-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한계수입이 음(-)의 값을 가지게 된다.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이는 발생할 수 없다.
- ② 경우에 따라 음(-)의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.
- ③ 러너지 독점력 지수는 가격탄력성의 역수이므로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지수는 커진다.
- ④ 가격차별 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에 높은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.
- ⑤ 1급가격차별의 경우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수량이 거래되므로 순손실은 없다. 다만 모든 소비자잉여가 기업에 귀속된다.

3번 ②

- ②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하다.
- ①③④⑤ 맞는 선택지이다.

4번 ②

명목이자율 = 실질이자율 + 인플레이션율 = 2 + 4 = 6%
이자소득세율이 20%이므로 세후 명목이자율 = (1-0.2)×6 = 4.8%

5번 ①

- ① 골라내기는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.
- ②③④⑤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감춰진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나타난다. 그 결과,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거래되는 '역선택'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신호발송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.

6번 ④

$$\text{한계대체율} = \frac{M_X}{M_Y} = \frac{aY}{(1-a)X}$$

X재 2단위, Y재 4단위일 때 한계대체율이 4이므로

$$\frac{4a}{2(1-a)} = 4$$
$$\therefore a = \frac{2}{3}$$

7번 ②

$$\frac{C}{D} = 0.6, \frac{Z}{D} = 0.2$$
$$\text{통화승수} = \frac{\text{통화공급}}{\text{본원통화}} = \frac{C+D}{C+Z} = \frac{\frac{C}{D}+1}{\frac{C}{D}+\frac{Z}{D}} = \frac{1.6}{0.8} = 2$$

8번 ④

$$\text{수요의 가격탄력성} = -\frac{dQ^D}{dP} \cdot \frac{P}{Q^D} = -(-1) \cdot \frac{60}{40} = 1.5$$

$$\text{공급의 가격탄력성} = \frac{dQ^S}{dP} \cdot \frac{P}{Q^S} = 1 \cdot \frac{100}{80} = 1.25$$

9번 ③

부과 전 : $200 - P = P - 40 \rightarrow P = 120, Q = 80$

부과 후(생산자에 부과했다고 가정) : $200 - P = P - 60 \rightarrow P = 130, Q = 70$

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30,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110이다.

소비자잉여 감소분 : $(80 + 70) \times (130 - 120) \div 2 = 750$

생산자잉여 감소분 : $(80 + 70) \times (120 - 110) \div 2 = 750$

정부 조세수입 : $20 \times 70 = 1,400$

결과적으로 순손실이 $750 + 750 - 1,400 = 100$ 발생한다.

③ 10원 감소한다.

10번 ①

확실성등가 : $CE^{0.5} = 0.5 \times 16^{0.5} + 0.5 \times 64^{0.5} = 6 \rightarrow CE = 36$

위험프리미엄 : $RP = EW - CE = 0.5 \times 16 + 0.5 \times 64 - 36 = 4$

11번 ⑤

⑤ 내쉬조건만으로는 완전균형으로 부족하고 신빙성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.

①②③④ 맞는 선택지이다.

12번 ⑤

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만큼 부과하면 된다.

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$PMC + MEC$ 의 교점에서 결정된다.

$$100 - Q = Q + 20 + Q + 50 \rightarrow Q = 10$$

따라서 $MEC = Q + 50 = 60$ 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.

13번 ③

$$\begin{aligned} \text{정부지출승수} &= \frac{1}{1 - MPC + m} \quad (\text{단, } MPC: \text{한계소비성향}, m: \text{한계수입성향}) \\ &= \frac{1}{1 - 0.6 + 0.1} \\ &= 2 \end{aligned}$$

따라서 정부지출이 50조원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$50 \text{조} \times 2 = 100 \text{조}$ 원 증가한다.

14번 ④

④ 일시적인 소득증가는 저축으로 연결되므로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감소한다.

①②③⑤ 맞는 선택지이다.

15번 ④

순손실 = 소비자잉여 감소분 - 생산자잉여 증가분 - 정부 관세수입이므로

순손실과 추가적인 생산자잉여의 합은 소비자잉여 감소분에서 정부 관세수입을 뺀 값과 같다.

관세 이전 : 가격 130, 수요량 140, 공급량 15

관세 이후 : 가격 150, 수요량 100, 공급량 25

소비자잉여 감소분 : $(150 - 130) \times (140 + 100) \div 2 = 2,400$

정부 관세수입 : $20 \times (100 - 25) = 1,500$

따라서 $2,400 - 1,500 = 900$ 이다.

16번 ①

각각 총공급의 증가, 총수요의 증가가 필요하다.

- ② 소득세율의 인상은 총수요의 감소
- ③ 가계 소비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
- ④ 수출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
- ⑤ 생산비용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

17번 ⑤

경제활동인구 = 생산가능인구 $\times$ 경제활동참가율 = 3,000만

그중 실업자가 500만이므로 취업자는 2,500만

실업자가 취업자로 바뀌는 경우 : $500\text{만} \times 20\% = 100\text{만}$

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는 경우 : $2,500\text{만} \times 4\% = 100\text{만}$

따라서 2022년 취업자와 실업자는 불변이다.

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$500\text{만} / 3,000\text{만} = 16.7\%$

18번 ②

소비 : CHits에 판매된 80만 원어치

순수출 : 해외로 수출된 130만 원어치

투자나 정부지출은 없다.

따라서 GDP는 $80\text{만} + 130\text{만} = 210\text{만}$ 원이다.

19번 ⑤

- ① 기업의 투자 감소가 지속된다는 것은 총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.
- ② 피구효과는 물가 하락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값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.
- ③ 총수요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기 위해 긴축보다 확대를 지지할 것이다.
- ④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총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을 유발하므로 GDP가 증가한다.
- ⑤ 총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물가하락폭은 작다.

20번 ①

일반적으로 환율은 1달러=1,000원으로 표시하는데 문제에서는 1원=0.001달러로 나타내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.

- ① 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갑국 통화 표시 가격에 환율을 곱한 값이다. 환율이 하락하므로 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. 반대로 을국 제품의 경우 상승한다.
- ② 달러를 환율로 나눈 값이 갑국 통화 표시 금액이므로 환율이 낮아지는 2022년에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.
- ③ 달러를 환율로 나눈 값이 을국 통화 표시 금액이므로 환율이 높아지는 2022년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.
- ④ 을국 통화는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으므로 가치가 상승, 반대로 갑국 통화는 가치가 하락한다.
- ⑤ 달러를 갑국 통화로 바꾸는 경우 환율이 낮아지는 2022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.

21번 ①

- ① 경상수지는 $120 - 20 + 10 - 35 = 75$ 이므로 흑자이다.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(자국 통화 가치 상승)을 유발한다.
- ② 본원소득수지인데 10이므로 흑자이다.
- ③ 서비스 수지가 -20이므로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다.
- ④ 이전소득수지인데 -35이므로 적자이다.
- ⑤ 상품수지가 120이므로 수출액이 120 많다.

22번 ⑤

- ① X재 1단위 생산하려면 Y재 1/2단위를 포기해야 한다.
- ② X재, Y재 모두 시간이 적게 든다.
- ③ 을국의 경우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Y재 1/3단위이므로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.
- ④ 상대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교역의 이득이 없다.
- ⑤ X재 1단위의 상대가격이 Y재 1/2단위와 1/3단위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이득이 생긴다.

23번 ④

- ④ 고전학파의 주장이다.
- ①②③⑤ 맞는 선택지이다.

24번 ①

균제 상태 : $sy=(n+\delta)k$

$$0.2 \times 2k^{0.5} = (0.05 + 0.05)k \rightarrow k=16, y=8$$

따라서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$8 \div 16 = 0.5$ 이다.

25번 ③

- ① 고정금리인 경우 상환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한다. 따라서 채권자는 불리하다.
- ② 먼델-토빈효과는 단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명목이자율 상승폭이 작아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이다.
- ③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측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.
- ④ 정부 재정적자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자금 공급까지 실시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진다.
- 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. 이는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데, 균형이 유지되면 공급도 감소해야 한다. 현재 통화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.